

한총련 성추행 사건 무혐의 처리에 개탄한다!!

연 세 대 여 성 자 치 연 합

(여성학소모임, 성정치위원회 the other, 6대 법대여학생회, 법대 성연구모임 '동쪽')

588이나 가라. 이런 년들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다 수출해 버려야 한다. 니네가 뭐 김정일 기쁨조냐. 북한으로 보내라. 고 년들 털 참 많게 생겼다. 돌 한번 던진 애들한테 한 번씩 빨아줬나? 내가 밥사줄테니까 내것도 빨아줄래? 가슴이 벌써 다 처졌더라. 어떤 애들은 가슴을 만져보니까 처녀같지가 않아...

...지나가는 애들 순서대로 가슴을 덩싹 잡아가지고 뜯었어요. 엉덩이를 전문적으로 만지는 사람 따로 있었어요... 전경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몸매이야기하고 얼굴 좀 들어봐라...

[피해자 인터뷰 녹취록 중]

토요일 28일, 약 3개월 간의 수사 끝에 한총련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무혐의 처리로 검사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가해자가 정확하지 않고, 물증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 사건 개요

▶96년 9월 : 한총련 사태의 과잉 진압이 알려지자 사회 단체들이 인권 피해 조사를 시작했다. 재산 피해, 부상, 폭행, 고문, 허위자백, 성폭력 등에 대한 총조사 건수는 108건이었으며, 이 중 성폭언 36건, 성추행 41건, 성추행목격 14건으로 밝혀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성명서 발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촉구

▶10월 : 국회내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추미애 국회의원의 의원이 이 사실을 폭로, 그러나 다른 의원들에게서 모욕만 당함.

학생들은 여론전과 선전전을 진행

▶11월 : 한총련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성추행과 언어폭력에 대한 고소, 고발

학생들은 대책위(현재 9개 대학 참여)를 구성해 서명운동 등 시작

▶3월 : 검사에 의해 기각

2. 무혐의 처리의 부당성에 대해

▶**물증 부족?!** 한총련 사태 때 여대생들에게 내뱉어졌던 성폭언들과 신체적 성추행은 당연히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성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물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성추행에 대한 몰이해이며 성폭력특별법을 마음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비디오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 당시 학교가 원천봉쇄되면서 기자들의 출입이 금지됐었고, 미리 와 있던 기자들은 자신의 '밥줄' 때문에 비디오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증인에 의하면, 방송기자들이 접근하면 폭언과 폭행을 잠시 멈추던가 아니면 방송국 차원에서 방송에 '부적절한' 장면¹⁾들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사에 비디오 자료가 없었다'며 무혐의 처리하는 것은 기만일 뿐입니다.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다?!** 연세대에 투입되었던 병력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헬

1)당연히, 학생들이 전경들에게 맞는 모습이나 성추행을 당하는 모습의 장면들이다.

멧에서 마스크까지, 완전무장하고 있는 그 많은 전경들을 어떻게 알아보라는 말일까요? 이번 성추행은 집단성이라는 면에서 특수한 경우입니다. “여자들은 벗겨야 말을 잘 듣는다”라는 명령을 받은 수많은 전경들이 가해자였고, 연해되던 수많은 여학우들이 성추행을 당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집단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무조건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는 검찰/경찰의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86년 부천 성고문 사건, 청량리 경찰서 경희대 여학생 성추행 사건, 5.3인천시위 연행자 성고문 사건, 노동현장 여성활동가 윤간 사건, 95년 암사동 철거지역 강동경찰 성추행 사건, 번3동 철거지역 종암경찰 성추행 사건, 97년 병원노련 남대문 경찰 성추행 사건.....

3. 한총련 사태는 하나의 배경일 뿐이다.

이번 성추행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공권력’이라는 것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공권력은 당연히 남성중심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은 여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성폭력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청량리경찰서 경희대 여대생 성추행사건, 5.3인천 시위 연행자 성고문 사건 등등....이 자보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진압할 때에는 성추행이 최고다’라는 강령이 전경들 사이에 돌 정도입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여성들의 고통은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가부장제의 현실 -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4. 여성 비하적인 군대 문화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중 가장 극대화된 형태가 아마도 전쟁시 성노예제도²⁾일 것입니다. 이것과 진압과정에서 벌어지는 성추행들은 모두 가부장적 군대문화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수직적이고 절대적인 명령구조와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내뿜어지는 여성 비하적 언설/행동들은 가부장성이 극대화된 군대문화를 형성하고 이것은 곧 사회의 가부장적 구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여성들은 희생되고 있습니다. 군대문화, 시위 진압 과정, 전쟁.....집단적인 남성성에서 비롯되는 폭력이라는 맥락에서 동떨어진 사건들이 아닌, 명백한 **성폭력의 역사**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당한 성폭력의 역사를 밝혀내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여성들이 모욕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기만적인 무혐의 처리 즉각 철회하라!!
사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법정에!!

한총련 성추행 사건 무혐의 처리에 대한 규탄대회

4월 5일 토요일 1시 - 서울역

주최 :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대책위원회 (연대 여성자치연합, 서울대 여성모임연대, 한양대 여성위원회, 이대 여성위원회, 동덕여대 여성행동위원회, 서울시립대 총여, 서울산업대 총여, 성균관대 총여, 동덕여대 총여)

항상 성폭력의 공포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성들.....더 이상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싶지 않은 남성들.....여러분들겐 동지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응해나갑시다.

여성자치연합 (현재 총여실 거주) 361 - 3645

2)이제는 ‘일본 위안부’라는 명칭을 버리고 과감히 ‘성노예제도’라고 부르자!!